

제12회 한용교포장인상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는 2월 25일 포장인의 날에 제12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제 12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는 ▲ 수출진흥부문 이경희(삼영화학공업(주) 상무이사) ▲ 연구개발부문 이덕재((주)유상 연구개발부 부장) ▲ 장학부문 최홍열(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년), 황준우(경북과학대학 포장과 1년), 이진아(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등이다.

한용교포장인상은 한국포장협회 한용교 명예회장이 희사한 재원으로 포장인들에게 연구의욕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 포장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지난 1996년 제정됐다.

본 고에서는 제12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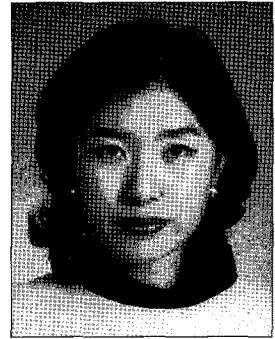
제12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수출진흥부문	이경희	삼영화학공업(주) 상무이사
연구개발부문	이덕재	(주)유상 연구개발부 부장
장학생부문	최홍열	연세대학교 패키징학 3년
장학생부문	황준우	경북과학대학 포장과 1년
장학생부문	이진아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2009년 5천만불 수출 목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통해 차별화 전략 실천



이경희 / 삼영화학공업(주) 상무이사

“포 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제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수출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국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라는 의미로 알고 매진하겠습니다.”

(사)한국포장협회가 매년 포장인의 날 시행하고 있는 제12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에서 수출진흥부문 수상의 영예는 삼영화학공업(주) 이경희 상무이사에게 돌아갔다.

1999년 삼영화학에 입사,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포장' 과의 인연을 맺고 있는 이경희 상무는 미국 보스턴대학 MBA 과정 및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 경영자 과정, 겸임 교수 재직 등의 경험을 통해 국제시장 정세를 파악, 경영 전반에 걸친 실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삼영화학에서 BOPP 필름, CPP 필름, Capacitor 필름, PVC 필름, PE 필름 등 모든 제품을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룹 전반의 기획업무를 겸하고 있는 이경희 상무.

그녀는 다년간의 중국시장 공략과 수출을 통하여 중국 대련공장의 설립과 현지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결과, 삼영화학의 제품인지도를 높였으며 2000~2002년 대련 영업사무소와 창고 운영을 통해 중국 시장 기반을 확대했다.

그 결과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물량의 80%를 상회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5,000만 불 해외직접 투자를 달성하여 기존 중국 수출물량을 모두 현지생산으로 이전 가능하도록 기획, 지휘했다. 그녀가 처음 필름 수출을 담당했던 2000년대 초반, 대중국 수출비율은 전체의 80%를 차지했던 것이 현실. 이후 이 상무는 중국과 몇몇 국가에만 편중되어 있었던 수출선을 개선, 수출다변화 및 고객 맞춤 품질 향상으로 현재는 30여국에 장기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BOPP 필름같이 해외에서 저가제품과 경쟁하는 오픈마켓 시장에서도 장기 거래처 유지에 노력하는 등 지난 해에는 그동안의 수출경험과 노하우를 접목, 무역시장에 삼영화학의 품목 진출을 확대시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08년도 수출실적만 40,175천 달러를 달성, 2007년 대비 41% 수출 실적 신장율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뤄, 지난 해 제45회 무역의 날 삼영화학은 3,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이종기 대표이사는 대통령 표창을 이경희 상무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이경희 상무는 삼영화학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의 정보망 및 코트라 지사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해외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관하는 등 해외마이어와 동반자적 경영 의식으로 수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 이래로 중국 각지에서 BOPP, Capacitor 필름 생산라인이 50개 이상이나 가동되면서 전 세계 필름가격은 경쟁적으로 요동치고 미국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 성장의 동반 둔화로 필름수요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이경희 상무는 “포장재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인 편이지만 포장필름의 경우 화학제품의 특성상 기름값과 환율에 매우 민감한 제품이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밝히면서 “최근 중국, 인도, 태국 등 저가제품과 경쟁이 치열하여 판매에 애로가 많은 것은 물론 ASEAN 국가와 경쟁할 경우, 관세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그녀는 “국내 시장에서만이라도 저가 제품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업계 및 정부의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바람을 표했다.

지난 1월 한국의 수출규모는 33%나 감소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운 현재, 수출 기업들의 신규업체 개척은 필수적일 터.

이경희 상무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신 시장 개척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기에는 인력, 자금력, 정보수집력 면에서 실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경제단체, 무역 협력단체, 포장단체 등에서 특화되고 효율적인 실질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 산업계 발전을 이끌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삼영화학 역시 신규시장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특히, 일본 시장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지난 해부터 EU 시장에서의 팔목 성장을 기반으로 향후 23년간은 유럽에서 천만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범용 생산품을 현지 판매하고 한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안정된 판매망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삼영화학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축전용 초박막 필름을 통해 기존의 포장용 필름과 더불어 올해 5,000만불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 경영 및 경영 전반에 걸친 실무능력을 토대로 지난 10여년 간 삼영화학공업(주)의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져 온 이경희 상무이사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해 본다. ko



신제품 개발 통해 포장산업 발전 일조

전자 보호용 필름 및 저온 CPP 필름 등 개발



이덕재 / (주)유상 연구개발부 부장

“한 용교 포장인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우리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싸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에 큰 기쁨을 가지며 항상 연구 노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개발하는 포장인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주)유상 연구개발부 이덕재 부장은 “지난해 식품포장업계는 계속되는 식품 이물 파동과 중국의 멜라민 파동 등으로 그야말로 최악의 한해였다”며 “이러한 대내외 환경에 회사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국산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유상의 연구 개발품은 국내외 제과 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IT Film은 일본의 필름 Maker 보다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덕재 부장은 처음 롯데그룹중앙연구소 포장 개발팀에 입사한 후 식품포장 개발을 담당하면서 포장부문 품질 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식품포장업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는 (주)유상에서 산업용 보호용 필름을 개발해 국내 굴지 전자회사에 적용함으로

써 그동안 수입에 의존한 필름을 국산화시켰다.

유상의 전자 보호용 필름은 IT 소재의 보호용 필름으로 최적의 품질을 자랑하며 수입대체 및 수출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우수한 공정관리로 원가절감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일찌감치 인정받아 LG전자, 제일모직, 삼성정밀화학 등에 납품하고 있다.

“식품 포장용으로써의 Film 생산은 한계점에 있는 점을 파악하고, IT Technology 기술을 통하여 IT 소재(BLU)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Film을 개발하여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Display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매출 구조를 식품용과 산업용으로 50:50 재구성, 건강한 기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자 보호용 필름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유상은 고부가가치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 또 한번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위력을 과시했다.

보호용 필름 외에 이 부장은 저온 CPP 필름과 하이 베리어 및 이지컷 CPP 증착필름, 이지필 필름 등을 개발, 유상의 위상을 높였다.

유상의 저온 고속필름은 열접착 온도가 낮고(기존대비 30%), 보존기간을 연장시켜 원가절감 및 생산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완전 썰링을 구현하고 있어 제품 보호성이 뛰어나 소비자 클레임이 감소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 베리어 및 이지컷 CPP 증착 필름은 개봉특성이 우수하고 제품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투습도, 투과도를 향상시켰으며 수입품을 대체할 만큼 포장재 원가절감을 이뤘다.

우수한 응집 파괴형을 갖고 있는 이지필 필름은 고온의 썰링에서도 균일한 필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수입품 대체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부장은 “시장 조사를 위해 할인마트 등에 가보면 유상의 저온 CPP 필름과 하이 베리어 이지 컷 필름 및 이지필 필름 등이 적용되어 판매 중인 것을 볼 때 가슴 한편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 부장은 “CPP 제품만 생산하는 (주)유상이 ‘필름 잘 만드는 회사’로 소문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며 그 근원은 미래 포장 산업 환경에 대한 예측과 꾸준하게 신제품을 출시하고 좋은 품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제품을 개발할 때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다양한 Converter 경험을 중요시한다. “식품 포장 필름은 때로는 이론적으로 결과

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측하여 시나리오를 만드는 방법과 특성 요인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방법이 중요 합니다.”

국내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식품 포장 기계는 고속화 및 첨단 기능을 지닌 포장 기계로 변해 가고 있다. 여기에 동반된 필름 소재를 개발하지 않고는 일본 및 미국의 우수한 외국의 필름 업체의 필름을 수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이 부장은 포장의 변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산화에 기여하고자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특수한 필름은 외국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자체 개발을 통해 외국제품 보다 더 우수한 필름을 개발하였는데도 고객들이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때 아쉬움을 느낀다”는 이덕재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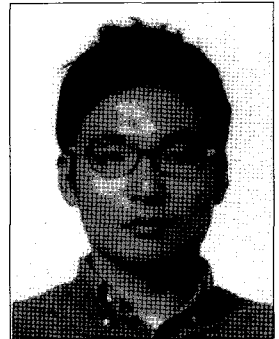
현재 그는 레토르트 필름에서 특수한 기능을 가지는 소재를 연구 중이다. 또한 IT 소재 용으로 BLU 중 확산판 및 도광판 보호용 필름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 Launching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포장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먼저 개발되어 앞서가는 필름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는 이덕재 부장의 다음 도전을 기대해 본다. 



전문 포장인력으로 성장할 터

최홍열 /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3년



“신 청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장학생 부문에 신청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희소식을 듣게 되어서 기쁩니다. 동시에 더 열심히 패키징을 공부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에 수상된 연세대 패키징학과 3년인 최홍열 학생은 평소 학업자세가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정평 나 있다.

최홍열 학생은 '패키징학 입문'을 수강하면서 새로운 학문이라는 점에 매료 되어 전공으로 선택했다"며 "4년제 대학으로는 유일한 학과라는 특이성과, 새로운 학문이라는 장점이 전공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많은 업체에서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는 최 학생은 패키징을 배우면서 아직까지는 외국 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내 사례를 담은 서적이 부족한 것을 아쉬움 점으로 꼽았다. 덧붙여 패키징학과가 응용과학분야로써, 학부 과정 중에 이론뿐만 아니라 많은 실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포장산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지만, 산업 규모가 기타 산업에 뒤지지 않는 산업군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장 산업의 매력은 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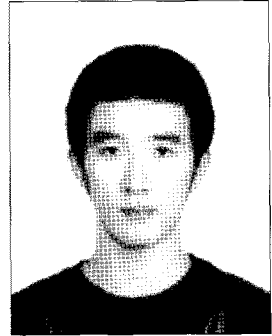
부분이 다양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포장에 사용되는 기술, 그것이 적용 되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포장을 공부하는 학생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과 아직 개척되지 않는 분야도 많아서 미개척 분야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 학생은 Active 포장과 '친환경' 포장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특히 '친환경'이라는 컨셉이 포장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 관심 분야이고, 동시에 기존 포장의 기본 개념인 보호, 보관, 마케팅, 디자인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포장이 앞으로의 포장 경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포장업체에 취업해 이론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실무를 통한 경험을 쌓은 후, 포장 선진국으로 나아가 최신 기술과 경향을 공부하고 싶다는 최홍열 학생. 그는 "포장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밝혔다. 포장학우들이 포장전문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고 있는 그는 은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에 선정된 만큼 좀 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포장학을 공부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포장인력이 되겠다"고 전했다. [ko]



완충 및 원가절감 포장분야 매진



황준우 / 경북과학대학 포장과 1년

“우 수한 다른 학생들도 많은데 이런 큰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신 교수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2회 한용교 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에 선정된 황준우 학생은 평소 학과성적이 우수하고 포장관련 외부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는 군 제대 후 학교 간판보다는 특색 있고 비전있는 학문을 찾다가 포장학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경북과학대학에 입학하게 됐다. 그는 “포장학문이 단순한 선물포장으로 알 정도로 처음에는 다소 생소한 학문이었었는데 물리적인 성질, 화학, 생물 삼각함수 등 다양한 지식이 요구됨을 알고 적잖게 당황했다”며 “과학적인 학문만큼 일반인들에게도 홍보가 절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실습, 해외연수, 주요 기업이나 산업체 견학 등 학생이 보고 듣고 느끼는 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폭 늘려 포장학우들이 전문포장인력으로 성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장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포장은 쓰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선물포장, 택배의 완충포장, 식품포장, 진공포장 등 시대가 발전할수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습니다. 필요조건에서 필수 조건으로 거듭나는 포장산업은 더욱 각광 받을 것입니다.”

현재 황준우 학생은 완충포장과 원가절감 포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소비자가 받기까지의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충격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존에 드는 원가보다 적은 원가로 동급 또는 이상의 포장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이윤 창출 및 저가의 소비자가격 창출을 이뤄낼수 있다는 것.

이 두 학문에 좀 더 심도있게 공부하여 전문인력이 될 것이라는 황준우 학생은 자신만의 적성이나 특기를 살려, 기업에 이바지하고 경력을 쌓아 사업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그는 “3D를 다루는 프로그램 공부에 매진하고, Design과 포장을 연계해 ‘Packaging & Design’ 두 마리의 토끼를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준우 학생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포장학과 홍보, 장차 포장 꿈나무인 학생들이 참여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 연계 교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미래 포장산업을 이끌어 나갈 황준우 학생의 행보를 주목해 본다. ☐



고객 입장 대변하는 포장인 될 터



이진아 /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포장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재미있게 공부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과 저에게 포장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2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에 선정된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이진아 학생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용인송담대 유통학부의 포장코디네이션이라는 과를 알게 돼 포장관련 정보를 찾아보면서 포장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비전이 보여 입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장학을 공부하면서 포장이 어떤 과정을 걸쳐 완성이 되었는지, 처음 접해보는 용어들을 배울 때가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도 느꼈다”는 그녀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실험자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평소 학과일에 적극적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모범적인 학생으로 정평나 있는 이진아 학생은 현재 식품포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포장의 기본적 기능을 바탕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식품포장을 연구하고 싶다

는 그녀는 “현대사회에서 포장산업은 그 기능과 역할이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으며 현대인의 생활에서 포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누구에게나 포장은 공통 관심사가 될 수 있으며 포장이 제품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포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포장전문기업에 취업하여 ‘포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담은 용도로써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한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현명한 포장인이 되고 싶다는 이진아 학생.

그녀는 포장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포장재질을 연구하여 포장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학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 및 관련업체에서 포장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Vision을 제시해주고 소비자들에게 포장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지길 바란다”는 이진아 학생은 “포장관련 분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충실히 하여 다양한 포장재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포장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이진아 학생의 다음 도전이 주목된다. 